

家家戶戶 : 가가호호

박수민 서유라 윤나현 이소현 조유경



가가호호(家家戶戶)는 '집집마다'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성곽마을 속의 집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.

전시 소개

누군가에겐 성곽마을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 속 성곽마을은 그들만의 속도로 천천히, 조그마한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. 그 중에 집들은 소식과 변화를 기다린다 말하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맞이한 행복을 말한다. '家家戶戶 : 가가호호' 는 이 세 가지 기다림의 시선으로 성곽마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.



소식의 기다림



마주하게 될 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킨다.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설레게 하기도 하며, 받는 이를 기쁨 혹은 슬픔으로 점철되게도 한다. 성곽마을 주민들은 어떤 소식을 어떻게 전달받고 있을까? <언제나 기다림> <우편함에 담긴 이야기> <우유주머니의 배려>

변화의 기다림



성곽마을은 변화함과 동시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. 성곽마을 속 집들은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까? 성곽마을 속 집들은 변화의 과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? <집의 시간> <세월의 흔적> <쌈 트기 전>

기다림이 주는 행복



기다림 끝에 성곽마을은 여러 모습으로 변화를 꾀한다. 시간이 흐르고 거주자가 바뀔 때마다 집도 천천히 변화를 겪는다. 집의 변화는 곧 생활의 변화를 말하며 이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. 기다림이 주는 행복은 어떠한 모습일까? <쾌적한 삶> <새 단장> <봄맞이>